



보도시점 2024. 7. 16.(화) 배포 시 배포

2024. 7. 16.(화)

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% 완료, 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

- 신속한 손해평가를 위해 피해지역에 1,800여 명의 손해평가 인력 투입, 7월 18일부터 보험금 선지급 예정
- 장마 종료 시까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 당부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지난 7월 7~10일 정체 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.

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, 경북,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,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.

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,800여 명(예비인력 1,000명 별도)을 배치하여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하였으며,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7월 14일 기준 99% 완료*하였다.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%를 7월 18일(목)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.

* 손해평가 추진현황(7.14. 기준): 집중호우 피해신고 건수의 약 86%에 해당하는 23,000건 조사 완료, 특히 원예시설 조사율은 99%

또한,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, 대파대 등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.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,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
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“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”이라고 하면서, “7월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동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,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농업정책관	책임자	과 장	정재원 (044-201-1791)
	재해보험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현경 (044-201-1728)